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0년 겨울 제66권 4호



우리의 위로와 희망,
힘이 되는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변화가 시작되는 곳

130년 전

한글 성경이 전해진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막은 예배당이 되고,
노름꾼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이 만들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20 겨울 제66권 4호

02 포토에세이

나의 언어로 이해하는 말씀

04 2020 성서사업 보고

06 커버스토리

우리의 위로와 희망, 힘이 되는 성경

10 2020 해외성서 기증 현황

2020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55개 성서공회에
483,940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12 말씀을 만나다

구레노

14 성경을 받은 사람들

감격의 고백,
양골라 '움분두어' 신약전서 보급

16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핍박 받는 지역을 위한 기도

18 2020 국내외 성서 지원 사역 보고

변화가 시작되는 곳

22 후원 이야기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1. 제13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3. 성서한국 온라인 발행 전환 안내
4. 카카오톡 채널 개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44번길 110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0년 12월 30일
- 인쇄인 인쇄처 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나의 언어로 이해하는 말씀

카차스 목사는 짐바브웨 시골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국어인 치쿤다어로 된 성경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그는 치쿤다어 성경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 없이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치쿤다어로 성경을 번역할 번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언어를 빌리고 있기 때문에
치쿤다어로 성경을 읽을 때
더욱 말씀의 힘을 느낍니다."





▲ 번역 중인 시편 초안을 들고 미소 짓는 카차스 목사



권의현 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선물, 성경”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연대 기금(Solidarity Fund)’ 참여 요청에 따라 본 공회에서는 미화 50만 불에 해당하는 113,599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17개 회원 성서공회에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는 본 공회의 성서 기증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이 성서 보급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성서공회로서의 연대감을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티성서공회 마그다 빅터 총무는 실업률이 50%에 달하고 최저 임금으로 성경 한 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본 공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9,519부가 감소한 367,807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102개 나라에 174개 언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9,721부가 감소한 3,523,357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원 성서공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 보급이 부진하여 성서 제작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주기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화상 회의를 갖고 계속해서 회원 성서공회들의 성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신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에는 총 55개 성서공회에 483,940부의 성서를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중남미의 니카라과 아이티 온두라스 쿠바 푸에르토리코 등 21개, 아프리카 지역의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말리 에리트레아 등 23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등 6개, 유럽 중동 지역의 러시아 이스라엘 터키 등 5개 성서공회에 성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신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천1백여만 원이 증가한 40억 6천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디지털 소통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2012년 12월,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기초번역과 1차 번역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문장 검토는 80%, 기초번역자들의 재검토는 50%, 최종 번역 검토는 38%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로 볼 수 있는 본문 해설, 그림, 사진, 지도, 영상 자료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4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0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367,807부의
성경 보급



해외성서 보급

102개 나라에 174개
언어로 3,523,357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55개 성서공회에
483,940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약 3천1백여만 원이
증가한 40억 6천여만 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우리의 위로와 희망, 힘이 되는 성경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생활의 전반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스크 없는 외출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한동안은 대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마주앉아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리어지지 않음을 믿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더욱 늘어만 가고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높은 감염 위험에도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온라

인 예배를 드릴 미디어와 기반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집에 성경 한 권이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세계 각국 성서공회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성서공회의 성경 보급 사업이 중단되었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본부는 이들 성서공회들이 성서 보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50만 달러(약 6억 원) 규모의 성경 지원을 계획하였고 지난가을부터 성경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성경 보내기 후원 캠페인’ 진행 보고

많은 후원회원님들의 참여와 기도에 힘입어 17개 성서공회에 113,599부의 성경 제작 계획을 확정하였고,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에 스페인어 성경 18,174부가 제작되어 기증되었습니다. 이 성경들은 연말까지 각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7개 성서공회
113,599부
성경 제작 계획 확정



베네수엘라(7,273부),
에콰도르(5,876부),
코스타리카(5,025부)
성경 기증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하다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각국 성서공회들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이웃들을 찾았습니다. 작은 식료품 꾸러미와 함께 전달되는 성경을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강을 따라 성경을 전달했는데 사람들은 작은 카누를 타고 와 성경을 받아 갔습니다. 배포할 성경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었지만 한 권의 성경을 받아 간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 브라질성서공회에서 배포한 성경을 받는 사람들

겔프 지역 성서공회에서는 직업을 위해 이주해 왔다가 코로나19에 발이 묶인 이주 노동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초, 직업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가 코로나19로 사업장이 문을 닫자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몸과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이들은 성서공회가 제공하는 말씀 소책자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 말씀 소책자를 읽고 있는 메리

“직업이 없으니 소득이 전혀 없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읽었어요(행 16:16-40). 저도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메리(Mary)



한편 **잠비아**에서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성경 번역 작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잠비아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난자어(Nyanja) 신약 번역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서 회의할 수는 없지만 낡은 노트북 앞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 번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저녁이 되도록 이어지지만 성경 번역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번역자들이 기쁨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번역자들은 로마서 8 장 38 ~ 39 절 말씀을 읽으며 코로나19조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조물인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상기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성경 번역을 이어가는 잠비아 번역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성서공회들은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성경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나누고, 말씀 소책자를 제작해 보급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더 많습니다.



보내야 할 성경,
14개 성서공회
95,385부

자신의 언어로 무사히 성경이 번역되어도 그 성경이 널리 전해지기까지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QR코드를 통해
성서주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성서 보급이 어려운 17 개의 성서공회들에 약 11만 3천여 부의 성경을 지원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10만 원을 현금하시면 2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해외 이웃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2020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55개 성서공회에 483,940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성서공회 (2020.10.31 기준)

아메리카
21개
성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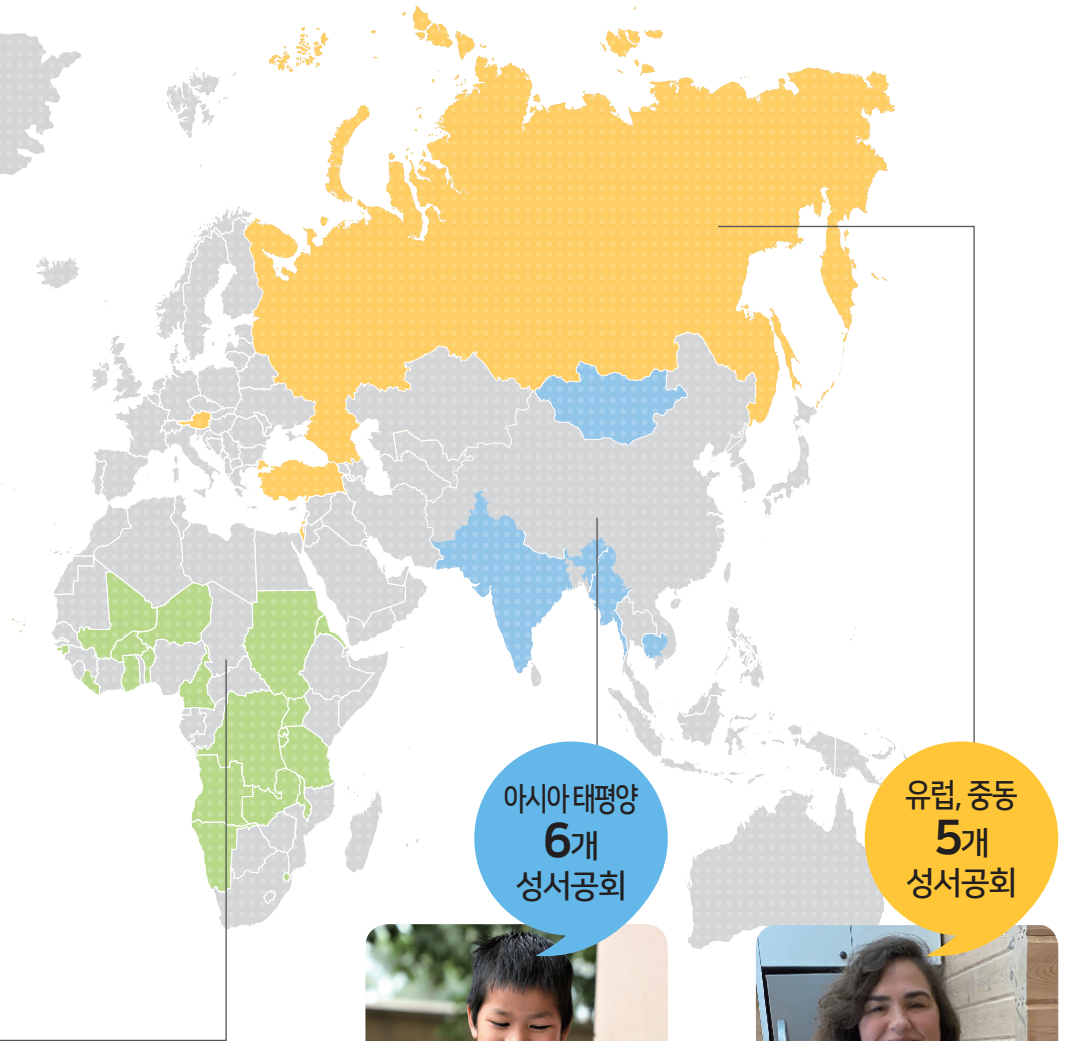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서인도제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
23개
성서공회



가나,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우간다,
잠비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남태평양, 몽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러시아, 아랍-이스라엘,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터키

구레뇨



그리스어: kyrenios

뜻: '구레네 출신자'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구레뇨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아우구스투스)와 디베료(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중요한 관직들을 맡았다. 그렇지만 그는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 “그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눅 2:1-2).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이 이미 헤롯 대왕의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현대 역사가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좀 더 오래된 자료, 예를 들어 타키투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스트라보 등의 자료를 보면, 한결같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 곧 구레뇨가 시리아(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대략 10년 전에 죽었다고 한다. 다만 요세푸스는 로마의 인구 조사가 구레뇨 재직 초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구레뇨는 기원전 51년에 태어나 로마 군대

에서 그의 인생행로를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 참가했을 것이다. 이 해전은 아우구스도의 승리로 끝났으며 구레뇨는 그 다음 10년을 스페인에서 복무했다. 기원전 14년에 그는 크레타와 키레네의 로마 총독이 되었는데, 그는 거기서 마르마리카 족속으로 알려진 광야의 노략자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로마의 원로원이 되었다. 기원전 6년에 구레뇨는 밤빌리아-갈라디아 지방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곳은 로마 제국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다. 그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원정에서 여러 번 성공하여 로마로부터 명예와 관직을 얻었다. 기원후 2년에 그는 황제 아우구스도의 손자인 가이우스 시저(또는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수석 자문관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아우구스도의 양자 디베료가 황제 지위의 합법적 상속자로 부상했을 때 구레뇨는 디베료의 진영으로 옮겨갔다. 기원후 6년에 구레뇨는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다. 그의 권한 영역에는 유대 땅도 들어 있었다. 당시 유대 땅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폭정으로 온갖 미움을 받던 헤롯 아켈라오가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쫓겨난 후였다. 아우구스도가 죽고 기원후 14년에 디베료가 황제가 되자 구레뇨는 다시금 로마에서 디베료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다. 기원후 21년 구레뇨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성대한 장례식이 공개적으로 치러졌다. 이 사실은 그가 마지막까지 디베료의 호

의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인구 조사가, 시리아에서 구레뇨의 활동 초기인 기원후 6, 7년에 실시되었던 인구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선임자인 센티우스 사투르니누스의 통치 아래 실시되었던 인구 조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사투르니누스의 인구 조사는 기원전 9년 혹은 기원전 6년에 실행되었다. 구레뇨가 이미 시리아 총독의 자리를 맡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누가복음에서 총독의 이름을 실수로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당시의 비문도 있다고 한다. 🌐

출처: Deutsche Bibelgesellschaft, ed.,
*Die Menschen der Bibel: Ein illustriertes
Lexikon der Heiligen Schrif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335 중
에서(번역: 김창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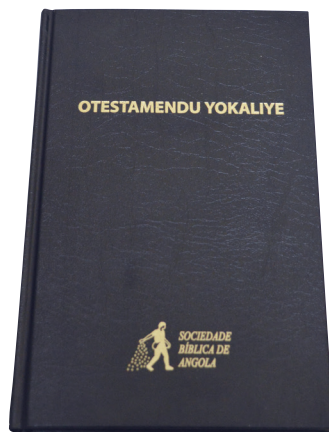
▼ 구레뇨(눅 2:1-2)가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여행했다. 세르비아의 칼레니치(Kalenic) 수도원에 있는 프레스코 그림(15세기).



감격의 고백, 앙골라 ‘움분두어’ 신약전서 보급

* 2018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움분두어 신약전서 5,792부를 제작하여 앙골라에 기증하였습니다.

움분두 부족은 앙골라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민족이며 움분두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족 언어입니다. 움분두어 번역은 내전 기간인 1999년 시작되어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번역이 이어져 신약전서가 완성되었고 현재 구약 번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움분두어로 된 신약전서를 받아 본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저마다의 감격을 고백하였습니다. 움분두어 구약 번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움분두어 신약전서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기는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스스로 돌볼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를, 교회에 다니던 이웃이 예배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돌보아야 할 남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욱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서 저를 위로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움분두어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힘을 누립니다.”

-마리아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충만합니다. 저에게 움분두어 신약전서는 큰 기쁨입니다. 이제 집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져가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타

"내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이어졌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끔찍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움분두어를 사용해 왔고 움분두어로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베네비지스



"저는 움분두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때 태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움분두어를 배웠죠.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움분두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화의 영향으로 움분두어는 무시당했고 집에서만 움분두어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움분두어 성경을 통해 자유롭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모스

"기독교인이었던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밤마다 시편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도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움분두어로 된 성경을 통해 자녀들에게 모국어로 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알베르티나



핍박 받는 지역을 위한 기도

▲ 조나스(왼쪽)와 조셉(오른쪽)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성서공회의 문
자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하던 두 명의 지도사
들이 보코하람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2년 동
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
코하람의 공격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많은 피
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지도사 중 한 명인 조나스는 교회의 야간 보초를 서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보코하람이 평소와 달리 햇빛도 쬌지 않고 공포탄도 쏘지 않았던 탓에 조나스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나스는 마을에서도 존경받던 교인이자 일곱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조나스 덕분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조나스의 죽음으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명의 문자교실 지도사였던 조셉도 보코하람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마을에 쳐들어온 보코하람을 피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셉의 자녀 중 한 명이 아팠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발각될까 두려워 조셉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

을 요구했습니다. 조셉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던 중 보코하람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망친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이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지역 성서공회 총무는 "부족어 번역 성경 완성에 앞서 공동체를 준비시킴으로써 두 명의 팀원을 잃은 뒤 우리의 과업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까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대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 사명을 완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라며 굳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동족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이들과 보코하람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부족어 번역자들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평화와 안전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당 지역 총무는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지역을 방문하던 중 보코하람에게 발각되어 현재 마을을 떠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 사역하는 성서공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가 성서공회와 사람들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국가명과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 전해진 복음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후원회원 여러분의 정성으로 성경을 보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전파에 힘써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공회 성서사업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사장 권 의 현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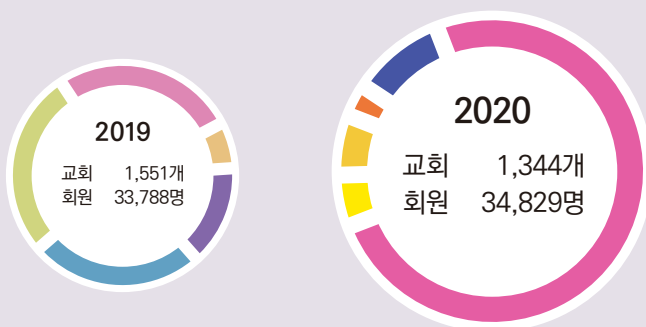
영상 QR 코드
후원 보고 영상 바로 보기

후원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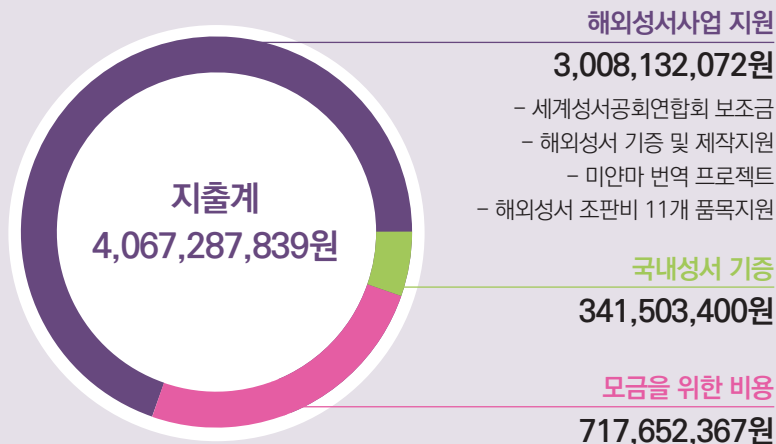
교회와 후원회원님의 헌금과 지원 내역

전국의 1,344개의 교회와 34,829명의 후원회원들의 참여로 총 약 40억 6천여만 원의 헌금이 답지하였습니다. 총 헌금은 지난해보다 3천1백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후원참여 현황



지원내역



해외성서사업 지원 내용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보조금

전 세계 150여 성서공회들이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여 각 나라와 영토에서 성경의 번역과 보급,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펼치는 다양한 성경에 기반을 둔 사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성서 기증 및 제작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급된 성경은 매년 전 세계 이웃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총 55개 성서공회
483,940부
성경 및 기타 기증

약 1,826,928,000원

미얀마 번역 프로젝트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얀마 소수 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제작하기 위해 ‘첫 번역 성경’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오랜 세월 성경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번역진행현황

번역완료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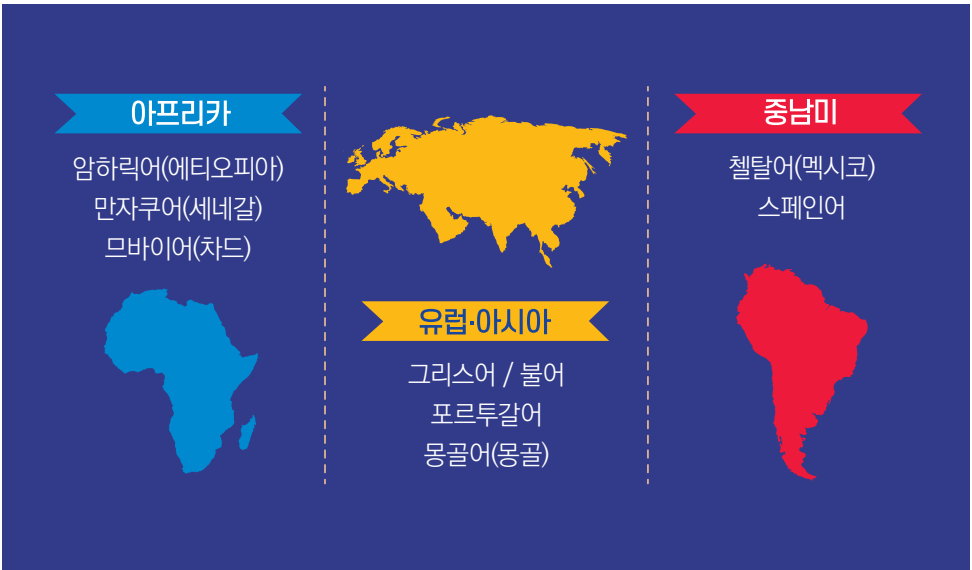
쿠미친어 구약전서 / 쿠알심어 구약전서
쿠알심어 신약전서 / 하와나가어 구약전서
라시드어 해설 신약전서 / 조친어 구약전서
레미어 신약전서 / 게바어 신약전서

번역진행중인 성경

파오어 구약전서 / 자이와어 구약전서
라오투어 구약전서 / 팔람어 신약전서(개정)
테딤어 신약전서(개정)

해외성서 조판 11개 품목지원

번역이나 성경 개정이 완료된 이후 성경을 조판할 디지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성서공회를 대상으로 조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판을 통해 새로운 번역이 나온 경우나 글자의 크기가 작아 책을 읽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양한 독자층에 맞는 성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성서사업 지원 내용

국내성서 기증

국내 미자립 교회, 군부대,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기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급된 성경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복음의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구촌 곳곳에 성경지원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성경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승리교회

〈스페인어 성경〉

1,000부 기증

2020년 9월 18일, 승리교회(진희근 목사)의 후원으로 베네수엘라에 〈스페인어 성경〉 1,0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진희근 목사는 “베네수엘라에 스페인어 성경이 전달됨으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

아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스페인어 성경 1,000부는 베네수엘라성서공회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지역 교회와 지도자 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급되는 성경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성서 보급이 힘을 얻고, 말씀을 읽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됨의 아름다운 역사

후원회원

〈몽골어-한국어 대조 성경〉

2,800부 기증

2020년 9월 23일, 한 익명의 후원회원이 후원한 〈몽골어-한국어 대조 성경〉 2,800부가 제작되어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의 대부분은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믿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직접 몽골에 와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몽골어-한국어 대조 성경 2,800부 중 2,000부는 몽골에 기증하며 800부는 국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몽골에 전해지는 성경은 현지 선교사들이 몽골어로 말씀을 준비하거나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 이주민과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말씀의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 제13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대한성서공회 제134회 정기이사회가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김운성 목사(영락교회)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 제134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익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황순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재곤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조성봉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선임되었다. 찬성회원 대표로 이정익 목사, 김경원 목사, 이용호 목사, 곽철영 장로, 최규완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 송영훈 장로가 감사로 재선임되었고, (주)바이블코리아 이사에 남상준 목사가 선임되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0 기부금 영수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www.bskorea.or.kr) 접속



성경 후원 ▶ 나의 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클릭

*휴대폰 문자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 이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기발급 받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온라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사업부 080-374-3061

3. 성서한국 온라인 발행 전환 안내

성서한국은 195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대한성서공회의 소식을 전하고 후원회원님들께 성경 보급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면 발행의 형태로 우편 발송을 이어왔으나 후원회원님들의 편의와 후원금 사용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내년도부터 지면 발행을 축소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면 소식지가 꼭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4. 카카오톡 채널 개설

본 공회에서는 후원회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후원 소식을 전하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성서공회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성서 보급 현장 소식과 후원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들과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나눠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실행하기

→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



채널 추가하기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성경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성경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월버포스 목사 -

월버포스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우간다의 세세 섬(Ssese Islands)에 방문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없는 소외된 지역에서 받아든
한 권의 성경은 매일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성경을 필요로 하는 세세 섬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세요!

